

보도설명자료

('22. 4. 7)

수신 :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

제목 : 정부가 그간 무분별하게 추진해온 신재생 사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예산의 대폭 삭감작업에 착수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4.7일자 서울경제 「전력망 없는 강통발전소 수두룩...‘신재생 금융’부터 메스 댄다」 보도에 대한 설명)

1. 기사내용

- 정부는 그간 무분별하게 추진해온 신재생 사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예산의 대폭 삭감 작업 착수
 - 예산당국이 추경예산 편성에 대비해 사업 구조조정 준비를 각 부처에 주문하였으며, 산업부는 이에 호응해 신재생 사업 감액 착수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

- 산업부가 무분별하게 추진해온 신재생 사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예산의 대폭 삭감작업에 착수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문의 : 재생에너지보급과 이경수 과장(044-203-5380) / 임은성 사무관(5384)